

날짜 2022-07-31(D1)      본문 창4:19-22, AC.405-426  
번호 2318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찬송 찬37,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아다와 썰라는 어떤 교회였을까?’

시작 주기도  
찬송 찬37,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기도 권영희 사모  
설교 창4:19-22, AC.405-426  
찬송 찬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 ① 월 첫 주 성찬 다음 주(8/7)는 월 첫 주 성찬 있습니다.
- ② 코로나 조심 주위 혈연, 친인척, 지인들조차 코로나가 가까이 왔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 축도

<sup>10</sup>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sup>11</sup>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창세기 4장 19절로 22절,

<sup>19</sup>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쉴라였더라 <sup>20</sup>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sup>21</sup>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sup>22</sup>쉴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창4:19-22)

를 본문으로, ‘아다와 쉴라는 어떤 교회였을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다와 쉴라’는 참된 교회, 곧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천적 천국, 영적 천국, 그리고 자연적 천국을 지상에 구현한, 그런 교회라는 것, 아다는 그런 교회의 천적, 영적인 것들의 어머니요, 쉴라는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이며, 그들의 자녀로 소개하는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과 나아마’는 그런 천국에 깃든 주님의 속성, 곧 모든 선과 진리, 사랑과 신앙의 요소들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 주님, 비록 교회 상황이 라멕과 같아 앞이 캄캄하여도 언제나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심을 봅니다. 강원도 큰 산불로 온 천지가 다 솟검뎡이가 되었어도 이듬해 봄, 놀랍게도 푸른 새싹이 돋아나듯 그렇게 주님은 교회도, 시대도 그리고 저와 같은 한 인간의 인생에도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도 오늘의 ‘아다와 쉴라’ 같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